

현장과 시각

농진청이 필요한 이유



송기동

사회2부 차장

농민과 관련 단체들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전남지역 농민 1만여명은 지난 13일 광주, 전남 등 전남지역 19개 시·군에서 동시 집회를 갖고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을 후퇴시키는 농진청 폐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의 연구사나 직원들도 농진청 폐지 방침에 "착잡하다"고 말한다.

딸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육묘·장회 등 일본 품종 일색이었다. 그러나 최근 '설향' 등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의 재배면적이 30%대까지 늘었다. 딸기도 2010년부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향 딸기 사업단'으로 지정된 담양 와우딸기 작목회장 기세출 회장은 "만약 농진청의 연구와 기술지도 기능이 이원화된다면 품종 개발만 해놓고 기술지도는 누가 하느냐?"라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품종의 장·단점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현장의 기술지도 기능이 크게 약화돼 농업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4년째 참다래(키위) 연구에 몰두, 골드키위 '해금'을 비롯해 그동안 4종의 신품종을 개발한 농업기술원 조윤섭 연구사 역시 "현 시스템에서도 다른 과일에 비해 연구비가 적은 실정인데 정부 출연기관화하면 단기 성과위주의 연구에만 집중하게 돼 장기적인 신품종 개발 연구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에서 육성한 신품종이 없으면 로열티가 오르고 '신품종 이용권' 제한 등 외국 종자회사의 의도대로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지난 2001년 농업연구기관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했다가 실패했던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오히려 농업연구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법인화 이후 단계적인 성과중심화 경영혁신을 통해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연구성과의 농가 보급과 산업체 기술 이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에서 정부대표로서의 활동이 제한적인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새 정부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되더라도 연구비는 계속 지원하기로 하겠다는 등 후속대책을 들고 있다.

그동안의 농촌진흥청에 문제가 있었다면 개혁을 해서 고쳐야지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소의 뿔 모양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慧眼)을 새정부에 기대해본다.

/ song@kwangju.co.kr

李당선인 무혐의 가닥

BBK 특검, 수사 결과 뒤집을 단서 못 잡아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당선인에게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당선인이 BBK투자자문 투자금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해온 특검팀은 기존 검찰의 수사 자료를 분석하고 BBK 투자자들과 이장춘 전 대서 등 여러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뒤 이 당선인을 방문조사하면서 기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300억원에 달하는 읍서널벤처스 증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MAF(말레니엄 어베트리치 펀드)의 '인증서명' 자료를 새로 확보해 계좌 인출권이 김경준씨와 부인 이보라씨에게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당선인은 17일 밤 서울 중로

구 삼청각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BBK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배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으며, 광운대나 인문 인터뷰에서 한 말은 LKe뱅크를 같이 운영하던 김경준씨를 돕기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선인에 대해 '피내자사' 자격으로 진술조서를 받았으며 이후 그를 기소하려면 '피외자사'로 신분을 전환한 상태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수사 시한(23일)이 촉박한데다 취임식 준비 등으로 당선인의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팀이 첫 조사이자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큰 당선인 조사를 '피내자사' 신분으로 진행한 것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특검, 삼성 고위 임원 4명 소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8일 오후 이기태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배호원 삼성증권 사장, 신용환 삼성카드 전무 등 핵심 계열사 고위 임원 4명을 한꺼번에 소환해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은 그룹의 '양대축'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 회사라는 점에서 향후 삼성그룹 핵심 임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기태(60) 부회장은 2004~2007년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을 지낸 뒤 지난해 해부터 기술총괄 부회장(CTO)을 맡고 있

는 삼성의 대표적 전문경영인 가운데 한 명이다. 이 부회장은 '애니콜 신화'를 일구던 주역으로 삼성전자를 세계 톱 클래스 회사로 성장시킨 '관리형 CEO'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수창(59) 사장은 삼성생명·삼성화재 상무를 거쳐 2001~2006년 삼성화재 사장을 역임한 뒤 2006년부터 삼성생명 사장을 맡고 있다.

배호원(58) 사장은 그룹의 재무전문가로 통하며,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최광해 부사장, 전용배 상무 등으로 이어지는 핵심 라인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美경축특사단

하인스 워드 등 스포츠 인사도 포함

미 행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기로 한 경축특사단에는 정치·군사분야 인사 뿐만 아니라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제·스포츠 인사까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장으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임명했다. 미 행정부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외교사령탑'을 파견한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의 폴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이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는 토머스 맥라티 백악관 특별보좌관이,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때는 게리 에커먼 미 하원 국제관계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이 특사단장으로 참석했었다.

라이스 장관은 25일 취임식에 참석한 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북핵문제 등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업무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관계적으로 특사단에 포함돼온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와 버릴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특사단으로 뽑혔다.

이번 특사단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웬디 커블러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마추에서 뒤엀던 윌리엄 로데스 한미경제회의의 미국측 회장으로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계 미식축구 프로선수인 하인스 워드가 공식대표로 들어간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코소보 독립 선언 코소보가 1999년 내전 종결 뒤 8년여 만에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코소보 의회는 17일 오후 3시 특별회의를 소집, 베토벤의 '환희의 승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공식 선언했다. 코소보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이날 수도 프리슈티나 중심가에서 깃발을 흔들며 독립선언을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슈퍼 대의원 잡아라 힐러리

美 대선 민주경선 장기화... 공격적 로비전

“슈퍼 대의원(super delegates)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반비의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는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의원간 민주당 대선 경선전이 장기전으로 흐를 공산이 커지자 양 진영은 대세가 8월 전당대회에서 결판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슈퍼 대의원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CNN과 AP 등은 17일(이하 현지 시각) “힐러리, 오바마 캠프가 슈퍼 대의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힐러리, 오바마 양 진영이 이처럼 슈퍼 대의원 공략에 혈안이 된 것은 힐러리 지지자였던 조지아주 존 루이스 하

원의원이 오바마 지지로 선출될 입장을 보여 결정적 계기가 됐다.

루이스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경선이 전당대회까지 가게 되면 오바마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힐러리 진영은 다급해졌다. 최근 경선에서 오바마 의원이 파죽의 8연승을 기록하면서 급상승세를 타자 흑인 슈퍼 대의원들이 오바마로 이동할 조짐을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바마 진영도 상황이 급박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슈퍼 대의원들이 자신에게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슈퍼 대의원 확보 수에선 여전히 힐러리의

원에게 밀리고 있고 당 지도부가 종립을 지키고 있어 대역전의 발판 마련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탓이다.

힐러리 진영에선 남편 클린턴 전 대통령이 총대를 매고 나섰다. 자신도 슈퍼 대의원 클린턴 전 대통령은 최근 슈퍼 대의원들에게 지지 전화를 거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반면 오바마 진영에선 오바마 대리인들이 오바마가 그간 승리를 거둔 주들 출신 슈퍼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약'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민주당의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고위당직자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슈퍼 대의원'은 총 796명이다. /연합뉴스

“오바마 급부상은 미국 변화의 무서운 바람” 美정부 고위관계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급부상은 미국사람들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무서운 바람입니다.”

공화당 출신 미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최근 민주당 경선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말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 대의원 확보경쟁에서 오바마가 최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앞서 나가면서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관련, “지지가 모든

계층과 연령대로 확산하고 있는 것은 미국사람들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고위관계자는 미국 상류층이 힐러리보다 오바마를 지지하는 이유는 누가 분열적이고 통합적인가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힐러리는 분열을 통해 지지를 확보하려는 과거 정치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바마는 무엇보다 정직하고 투명하다”고 지적,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강연

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내용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힐러리가 최근 500만달러를 선거캠프에 빌려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최근 힐러리의 지지가 떨어지게 된 것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흑인들의 영웅인 잭슨 목사의 공적을 낮추는 발언을 한 것이 주요 동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수강료 전액무료. 합격률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선거 유세 영상 차량 접수 중. 선명한 LED 영상 홍보 차량. (주)빅키시엔 T. 232-7777

건물 매각. 2007년 12월 14일. 017-622-8760

공인중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합격률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40년 전통의 합격신화!! 전남고시학원 236-2467~8 (전남여고 건너편)